

11 12



우리네



경기간행물 등록 번호

www.uriseed.com

Vol. 28

등록번호: 경기900007 등록일자: 2009년 8월 7일 발행일자: 2007. 12. 1 간행: 박영란 발행인: 박승원 편집인: 박승원 발행소: 경기도 이천시 유기면 송곡리 696 발행처: 우리꽃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96-82 TEL: 02-342-1281-2 FAX: 02-342-1283



테마가든 스케치 → 연재 ⑬

『양귀비, 금단의 꽃에서 만인의 연인으로...』

포천북식물원

‘양귀비’라는 단어를 접하게 되면 우리는 순간 무엇을 떠올리는가? 붓과 먹 변전만해도 아니, 지금 현재도 많은 사람들이 꽃보다는 ‘마약’이라는 이미지만 연상하게 된다. 그만큼 우리에게서 어렸을때부터 익숙해진 학살과 때묻은 게, 물론 우리나라에서 마약밀거래 관한 법률에서도 양귀비는 마약으로 명시되어있어 재배가 금지되어 있다. 그러면 정말 관상용으로는 이용할 수는 없는 것일까?

중국 당나라 원종대 때어난 미모와 총명함으로 원종의 마음을 사로잡았으나 시대의 흐름을 어지럽혀 일세를 풍미하다 38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게 된 정세의 미인 양귀비, 그녀처럼 너무나 화려하고 매혹적으로 아름다우나 마약 성분으로 인해 사람들을 어지럽히는 꽃으로 분류된 양귀비, 금단의 꽃이 되어버린 것이다. 하지만 모든 나라가 그런 것은 아니다. 어쩔지 자유화되고 외국으로의 왕래가 빈번해지면서 유럽쪽을 다녀오면서 양귀비를 관상용으로 흔하게 접할 수 있었고 특히 마약에 관해서는 어떤 다른 나라보다도 규제가 심하다는 일본에서조차 쉽게 볼 수 있었던 것이다. 바로 이것이 화해신전국이라는 면모를 엿볼 수 있는 것이다. 좋은것과 나쁜것을 가려 나쁜것은 철저하게 규제하되 좋은것은 최대한 활용한다는 점이다. 즉 양귀비는 위해서도 필요했던 법적으로 재배가 금지되어있지만 모든 품종이 그런것은 아니다. 마약성분인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파페라트 송니페라, 파페라트 세티게를 이르는 2품종만이 규제품종으로 명시되어있는 것이다.

양귀비는 세계적으로 약 100여종이 분포되어있고 이들은 화려한 외예 정화와 분화형으로도 많이 이용되고 있다. ‘우리꽃’에서는 5년전부터 지금은 범법농작의 대명사로 인식되어진 우리법만 혼합종에 1년생 양귀비종자인 잉글랜드 뽕배(개양귀비)를 혼합하여 조경용으로 적극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조금씩 반응이 오기 시작했다. 그 반응은 두가지. 너무 아름답다는 것, 그리고 ‘진국’이다. 그렇게 7차에는 몇몇의 남품받은 거래처에서 주위의 신고로 예를 먹였더니 근거자료 등을 통한 적절한 해명으로 넘어갔다. 그러다 2004년 여름, 일대 소동이 일어났다. 우리법만 4호로 시공된 왕재현 일부 구간에 편 양귀비를 보고 신고가 들어간 것이다. 관할경찰서 마약반에서 ‘우리꽃’으로 들어맞고 언론에서도 크게 보도된 것이다. 그 결과는 한뼘뒤 국회사에서 성분분석결과 마약성분이 나오지 않다는 관할경찰서

의 통보, 뒤를 이어 해당 언론사의 정정보도, 임대 업체를 차렸지만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이 오히려 양귀비를 관상용으로 인식하는데 큰 전환점이 될 수 있었다.

포천북식물원 양귀비축제, 아마도 양귀비를 일반인들에게 즐겁게 있는 관상을 꽃으로 하고 싶어서 인식시켜 주었던 행사라 아닌가 싶다. 3년전부터 잉글랜드뽕배, 아이슬란드뽕배, 캘리포니아뽕배 등 1년생 양귀비들을 대면적에 파종하여 5월말부터 약 1달간 양귀비축제로 관람객을 맞이했다. 그렇다면 굳이 왜 양귀비인가, 봄이면 대표적으로 유채를 이용한 축제를 생각하고 가을에는 코스모스를 연상한다. 하지만 비할바가 아니었다. 다시말하면 비교대상이 되지 않을만큼 양귀비는 너무 아름답다 환상적인 경관을 연출하는 것이다. 양귀비축제를 찾은 관람객들은 처음에는 양귀비를 재배해도 되는지 물어오다가 나중에 그 아름다움에 빠져서 양귀비꽃과 일심동체가 되어 가족끼리, 연인끼리 사진찍기에 여념이 없다.

과주 심한나 품꽃이 축제, 올해 여기서도 양귀비의 위력은 대단했다. 도로변에 인접한 나치에 대면적의 양귀비 군락, 작년까지 대부분의 차들은 누가 뭐랄지도 없이 갓길에 차를 세우고 저절로 양귀비 꽃밭으로 발걸음 향하며 탄성을 내지른다. 아마도 내년 봄에는 전국을 여기저기서 이런

모습을 목격하지 않을까 싶다. 적극적인 홍보와 파급효과로 각 지자체를 비롯하여 많은 곳에서 양귀비꽃자를 구입하여 가을에 이미 파종을 끝낸 상태이기 때문이다.



흰 뽕배



아이슬란드 뽕배

내년 포천북식물원에서는 기존의 양귀비종류에 더하여 흰뽕배, 뽕배뽕배 등 새로운 1년생 양귀비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올해에 새롭게 30여종의 속근조 양귀비를 조성하여 더욱더 양귀비식물원으로서의 진수를 맛볼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양귀비는 우여곡절을 거쳐 조경의 중요한 소재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제 양귀비는 금단의 꽃에서 만인의 꽃으로, 아니 만인의 연인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는 것이다. ()



다양한 속근 양귀비

Contents

- 테마가든 스케치 - 연재 ⑬ 1면
- 특집 II 2007년 우리꽃 2,3면
- 스포티비트/로라의 독자에게 5면
- 대표적 조경식물과/옥상, 양귀비들을 5면
- 마약의 조경식물과/옥상, 양귀비들을 6,7면
- 양귀비꽃 9,10면
- 양귀비꽃 9,10면
- 양귀비꽃 12면
- 양귀비꽃 13면
- 특집 III 2007 IFEX 14,15면

특집!

2007년 우리꽃은...

* 우리꽃 봄꽃축제 개최



작년에 이어 두번째로 이천연구소에서 품평회가 개최되었다. 각 조경업체 20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행사가 이루어졌다. 1부는 초빙된 교수님들의 강의가 있었고 2부에서는 전시포장을 관람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에는 8월에 개최되어 작년 가을에 방문하여 보았을때와는 또다른 경관과 식물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리라 본다. 내년에도 새로운 형식으로 품평회 자리를 마련해보고자 한다.

* 꽃양귀비 최고 인기품목으로...



포천부식물원 양귀비축제를 통해서 확대 보급된 꽃양귀비는 파주 삼학산 들꽃아일랜드의 핵심적인 소재로 이용되어 축제의 성공과 함께 더워터 각광을 받게됐다. 잉글랜드로베, 아이슬란드로베, 캘리포니아로베, 쥐는로베 등 다양한 꽃양귀비가 인기리에 전국적으로 판매되어 내년 봄 아름다운 축제를 예고하고 있다.

2007년은 꽃양귀비가 최고 인기상품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한 한해였다.

* 상록잔디패랭이 품종보호출원 결정



2006년 4월 18일 품종출원한 상록잔디패랭이가 심사과정을 거쳐 올해 품종보호출원이 결정되었다. 앞으로 상록잔디패랭이는 법적으로 품종보호를 받으며 증식, 생산, 수출 등을 독점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다. 품종보호권을 침해하였을 경우, 종자산업법 제16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앞으로도 계속 다수의 품종을 품종출원한 계획이며 우수한 품종을 개발하는데 역점을 둘 것이다.



* 세계 시장으로의 진출



올해도 2006년도에 이어 국내에서는 대한민국 환경조경박람회(LANDEX2007), 국외로는 동경국제플라워 엑스포(IFEX2007)에 참가 했었다. 특히 이번 IFEX에서는 '우리꽃'이 개발한 상품들을 가지고 나가 큰 호응을 얻었으며 조만간 일본내 몇몇 회사와 로얄티에 대한 협상을 가질것이다. 바로 세계시장으로 첫 발걸음을 내딛는 계기가 되리라 확신한다.

* 제4회 우리조경인상



8월 25일부터 4박5일간의 일정으로 백두산, 장백산, 중국현자농장 등을 우리조경인상 수상자들과 둘러보며 맛있는 시간을 보냈다. 제4회 수상자로는 파주시청, 골드레이크C.C, 푸른세상, 김해시기술센터 등 총 6팀이 선정되었고 일정상 4팀이 함께 중국연수를 함께했다. 내년에는 더 많은 팀이 같이 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 신상품 확대



올해도 각원장에서 많은 신상품이 적용되었다. 숙근코스모스, 가우라 등 기존의 인기리에 판매되어지는 품종외에도 올해 본격적으로 선보인 달개비류, 숙근사비비어류, 에버그린, 물리나리, 대시초 골드라이트, 탐수염류 등 다양한 신상품이 현장에 적용되어 제품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경관적, 기능적으로 우수한 새로운 품종은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출시 되어질 것이다.

* 박공영 대표, 2007년 신지식농업인 선정



당사 박공영대표는 2003년 세계농업기술상 수상에 이어 2007년 신지식농업인정에 선정되었다. 신지식농업인상은 농업, 농촌의 변화를 주도하는 선도농업인에게 주어지는 상으로 박공영 대표는 다양한 야생화의 신상품 개발 및 보급, 우리꽃 발행 및 품평회 개최 등을 통한 농업시장의 확대 등의 공로로 수상하게 되었다.

* 일조화선자



산동성 일조시에 조성하고 있는 일조화선자는 경관식물 및 복합생산 식물원으로 꽃이 필때는 꽃을 보여주는 관광서비스로 종자가 맺히면 채종과 묘종생산으로 그리고 조경업을 겸하는 전천후 종합 휴양관광 경원을 할 것이다. 지금도 아름다운 경관연출을 위해 탐종되고 있으며 앞으로 본격적인 중국진출의 고수보기 될 것이다.

연재 - 2 | 스포트라이트

봄을 알리는 소식
할미꽃



할미꽃(*Pulsatilla cernua* v. *koreana*)는 우리주변에서 이른 봄 가장 먼저 피는 꽃중의 하나이다. 할미꽃이라 불리게 된것은 꽃을 보고 지어진것이 아니라 꽃이 지고난 뒤 원뿔로 달린 열매머리가 백발이 서린 할미마고 같아서 붙여진 것인데 그 옛날 들에서 고달프게 밭일을 하는 우리 할미네들을 연상케한다.



할미꽃 열매 할미꽃

4월말까지 개화하고 꽃표면은 회갈색이고 꽃안쪽은 붉은색을 띤다. 열매는 일반적으로 5월말까지 가는데 지어진다. 열매에 따라 그 기간은 달라질수가 있다. 우리가 흔히 보아오던 할미꽃은 개화시 땅을 보면서 어둠로 인해 피는데 소박한 느낌을 가져다 준다. 할미꽃종류중으로 몇종류가 있는데 이름은 일반 할미꽃과는 달리 화색이 다양하고 양중있다. 품종들을 화색으로 분류해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불가리스할미꽃이라 부르는 보라색할미꽃과 빨간할미꽃, 흰할미꽃 등이 있다. 이들은 모두 하얀색을 향해 피는것이 특이하며 빨간할미꽃은 꽃의 표면과 안쪽이 모두 적색을 띤다. 품종들의 성장특성도 일반 할미꽃과 같이 적근성이고 해발이 잘 들고 배수가 잘되는 토양에서 잘 자란다.

이른봄 꽃을 감상하기위한 조경용, 분경용 최적의 소재

다른 꽃들보다 일찍 꽃을 피우기 때문에 봄 일찍 화단에 시 꽃을 보고 싶다면 라가논이나 혼합식재시 포인트식물로 식재하면 다양한 화색의 할미꽃을 이른 봄 감상할 수 있다. 단독식재를 하계되면 화기가 짧기 때문에 꽃이 지고나면

허전하게 되므로 되도록 혼합식재시 분식물로 적용하는게 좋을듯 싶다. 그리고 꽃이 예쁘고 아름답어 분경용으로도 최적의 소재로 이용할 수 있다.

할미꽃은 일반적으로 번식은 파종을 많이 하는데 씨앗을 너무 오랜시간 보관하면 발아가 잘 되지 않으므로 재종 후 바로 파종하는것이 좋다. 발아후 45일 정도면 포트에 옮겨 심을 수 있고 노지에 재배하려면 포트에서 약 60일정도 재배한 후 이식하는것이 바람직하다. 분주도 가능한데

시비를 충분히 해주어야 좋은 꽃을 볼 수 있어...

3-5년 한번이 적당하고 그 시기는 서늘한 가을로 하는것이 성공률을 높인다. 위에서 언급한 할미꽃 유색품종들은 반드시 분주하여야 그 품종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노지에 재배시에는 적박한 토양에서 잘 자란다 되니 잘 주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오히려 시비를 충분히 함으로 생육을 촉진하고 많은 양의 꽃을 피우게 할 수 있다. 일반적인 관리에서는 개화후 연 2회정도 시비해주는 것이 좋고 병충해예방에서는 나방의 피해가 있으니 잠마전투로 살충제를 살포해 주면 좋다.

빨강, 보라, 하양, 노랑의 형용색의 할미꽃을 봄 일찍 한자에서 감상할 수 있는 것도 또다른 재미를 가져다 줄 것이다.



흰할미꽃

우리꽃이 독자에게

'우리꽃'에는 우리꽃이 없다?

'우리꽃'이 개발하여 작년에 품종출원된 상록잔디패랭이가 드디어 품종보호출원이 확정되었다. 꽃이 불부터 가을까지 장기간개화하고 잎의 질감이 뛰어나고 전체적인 식물의 형태가 안정되면 좋은 품종을 가진 상록잔디패랭이는 앞으로 법적으로 모든 권리와 보호를 받게 된다.

특집 I, '2007년도 우리꽃.'에서는 품종보호출원된 상록잔디패랭이, 우리꽃 불꽃죽재 등 을 한해를 돌아보면서 혁신적인 내용들을 화보를 통해서 되돌아 보았다. '현장리포터' 또한 을 한해 또는 작년에 혼합식재, SRI가든, 우리밭연립합종 등을 이용한 조경기법으로 시공되어 아름답게 조성되어진 현장을 화보를 중심으로 소개해보았다. 그 어느 해보다 시공현장이 많아 분주했던 한해였다.

특집 II, '수중수변식물의 적용'에서는 현재까지 연지되었던 품종들을 중심으로 생태적으로 분류하여 수중수변식물을 알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총정리해내었다. 연못주변, 개류주변을 설계하거나 시공할 때 식물의 선택에 있어서 다양한 소재의 활용과 적절하고 올바른 적용이 중요하다. 이면에서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한다.

'식물관리체계'는 지금까지에 맞게 겨울철 노지에서 월동이 가능하거나 그렇지 못한 식물들의 월동대책에 대해서 굴취보관, 덮개, 커팅 등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다루었다.

특집 III, '에서는 10월에 열렸던 동경국제예악박람회(IFEX)를 소개하였다. 올해로 2번째 참가한 이번 박람회에서는 '우리꽃'이 개발한 신품종을 본격적으로 선보였으며, 속근코스모스의 새로운 품종, 황금무늬발개미취, 가우라 '메이비' 등 10여종의 신개발품종은 좋은 반응을 보이며 몇몇 품종은 귀국후 로망타 행사에 들어와 조만간 협의



그라스의 새로운 바람

털수염풀

1. 햇살, 바람과 함께 최상의 조화를 이루는 그라스
2. 잎의 부드러운고고금스러운에 있어 단연 돋보이는 식물
3. 분화용으로도 매우 좋아 디스플레이, 행사 축하용으로 각광받을수 있는 소재



자연을 담은 사람들 우리꽃
구입문의 : 02)3412-1281~2

대표적 조경식물군(Genus)으로 본 분류학적 의미와 품종의 이해

16



Lysimachia속

Lysimachia속은 영초과로서 그 형태나 특성면에서 다양한 150여 종이 존재하는데 주로 습기가 많은 토양을 좋아하는 종류가 많아 주로 물가에 서식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지피력이 뛰어나고 움직임 적인 적용하는 종류도 많다. 화색은 주로 하얀색 또는 노랑색이고 때로 분홍이나 보라색을 띠는 종류도 있다. 현재는 조경용으로 대부분 수변식물로 많이 이용되기도 한다.

황금무늬꽃썬뿔

황금무늬꽃썬뿔(*Lysimachia punctata* 'Alexander')은 이른 봄 새싹이 나올때는 붉은빛을 띠다가 점점 잎에 하얗게 무늬가 생기면서 꽃이 피자마자 도 무늬가 사라지고 잎 그 자체로도 관상가가 뛰어나다. 꽃은 6-7월에 노랑꽃이 식물전체를 뒤덮으며 아름답게 핀다. 키는 60-70cm정도 자라고 포기방음도 좋으며 포기전체의 잎이 단정해 모양이 좋다. 토양은 너무 건조하지 않은 수변이나 일반지에서 잘 자라며 수변의 포인트식물로 적용하면 매우 좋고 분재장이 좋지 않은 곳에 식재하여도 잘 적응한다. 유사종으로 많이 무늬가 없는 꽃썬뿔(*Lysimachia punctata*)이 있고 국내 지생종으로는 점썬뿔(*Lysimachia cuneata* var. *davurica*)와 점썬뿔(*Lysimachia cuneata*)이 있다.



꽃썬뿔

리시마키아

리시마키아(*Lysimachia nummularia*)는 음양지 또는 수변지의 지피식물로 매우 유용한 소재이다. 5-6월 피는 노랑꽃은 초록색 잎에 색을 더해 준다. 그리고 밝은 황금색이 되면 꽃보다 주위를 밝게 해주는 황금리시마키아(*Lysimachia nummularia* 'Aurea')가 있다. 리시마키아는 그늘의 토양수분이 충분한 곳에서 잘 자라는데 나무아래, 일부 소관목과 큰 키의 숙근초 주변에 심으면 좋고 봄철사이, 건물 뒤면 그늘지어 등에 식재하면 좋다. 특히 연못과 개울주변에 단독 혹은 타수변식물과 어울려 심으면 좋다. 특히 그늘진 수변의 돌주변에 무늬파라미, 가뭇주머니 등과 잘 어울려 식재하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습기가 있는 음지에서 배려 노랑을 원한다면 매우 적합한 소재로 활용할 수 있다.



황금리시마키아

큰가치수영

아간 수향 허망에서 자라는 다년초로 키는 60-90cm 정도 자라고 근원으로 번식한다. 꽃은 6-8월경 일출기 감에서 하얀색 꽃이 모여 한쪽으로 10-20cm길이의 꼬리모양으로 핀다. 하얀꽃이 무더기에서 피어나며 야생다을 뻗아나오므로 시각적으로 매우 아름다움 분위기를 해준다. 꽃이 크고 이색적인 형태를 띄고 있어 근식하거나 수변지역에 타식물과 어울려 식재하면 좋다.



봄을 여는 노란 햇살

옥상, 암석 가든용 식물 [연재 -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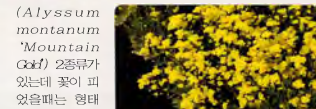
"구슬갯냉이"



해를 시작하는 봄의 암석가든은 꽃잔디류를 시작하여 패랭이류 등 붉은색과 분홍색이 주류를 이루며 수를 놓는다. 그 사이에 끼여 조그맣게 노란색 불우리를 이루면서 빛을 발하는 식물이 있다. 바로 구슬갯냉이(*Alyssum*)이다.

불우리라고해서 큰 형태를 이루는 것은 아니고 초장이 10cm미만으로 몸이 사선과 같이 등그런 형태를 유지한다. 4월말경 밝은 노랑

식물의 특성은 추위와 건조에는 강하나 습에 약하여 화와 화를 이루고 있도 은화색으로 질감이 뛰어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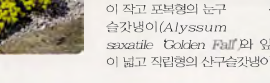


주위의 돌과도 잘 어울린다. 대표적으로 잎이 작고 포복하는 눈구슬갯냉이(*Alyssum saxatile*)와 Golden Ball과 잎이 넓고 직립형의 산구슬갯냉이

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배수가 좋은 암석가든에 식재하면 안정감있는 소재이다.

밝은 노랑색꽃을 피워 주위의 다른 꽃들과 조화를 이루고 있도 질감이 뛰어나...

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배수가 좋은 암석가든에 식재하면 안정감있는 소재이다.



눈구슬갯냉이

특집 II

수중, 수변식물의 적용

수변식물(습지에 잘자라는 식물)

수변식물은 습한 토양을 좋아하는 식물들로 흐르는 냇가나 연못주변에 다양한 식물들이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수변식물들은 생육이 왕성하고 잘 자라지만 물속에 잠기면 생육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특성과 주위 환경을 잘 고려하여 배치하면 아름다운 수변공간 연출이 가능할 것이다.



아스틸베 노루오줌이라고도 불리는 식물로 품종이 다양한만큼 화색 또한 매우 다양하다. 수변을 형형색색으로 화려하게 수놓을 수 있는 대표적인 식물이며 수변의 음지쪽에 적용하면 좋다.



꽃창포 수변의 대표적인 식물로 꽃이 무리지어 만개하면 보는이에게 시원함을 선사해준다. 간혹 꽃창포를 물속에 심어도 되는 것으로 잘못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수변에만 생육이 가능하다. 줄무늬가 아름다운 무늬꽃창포도 있다.



가우라 장기개화형 식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대표식물로 수변식물로도 적용이 가능하다. 특히 수변에 장기개화형의 식물인 거의 없는 상황에서 가우라는 수변의 장기개화형 식물로 군식하거나 혼식해주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호스타류 모자라고도 불리는 호스타류는 음지에 적용하는 소재로 흔히 알고 있지만 수변식물로도 배놓을 수 없는 중요한 소재이다. 잎의 무늬와 질감이 다양하여 다른 식물과 잘 어울리며 수변을 빛내주는 소재이다.



무늬파마이/파켓주름잎 모두 포복성으로 자라는 식물로 지피력이 뛰어나고 수변에서 잘 자랄뿐만 아니라 음지에서도 잘 적응한다. 그래서 수변의 돌주변에 식재하면 좋고 서로 어울려 식재하면 더욱더 좋다.



왕머위 수변에 적용할 수 있는 대형식물로 큰 연못의 가장자리에 숲속에 붙여 군식하면 좋고 매우 이색적인 느낌을 연출할 수 있다.



황금무늬꽃줄기 전체적으로 잎의 무늬가 아름답고 6~7월에 노랑색꽃이 식물전체를 뒤덮으면 그 또한 매우 아름답다. 수변의 포인트 식물로 적용하면 좋다.



해변무늬실사초 연못주변에 군식하거나 개국의 돌틈사이에서 식재하면 가는다란 잎이 늘어서 물에 흐르는 일을 보는 경관이 매우 아름답다.



원추리류 대부분의 원추리류는 일반지에서 잘 자라지만 수변식물로도 매우 적합한 소재이다. 품종이 다양하며 스텔라원추리의 경우 화기도 길어 좋은 수변경관을 연출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골드밴드 잎의 무늬와 광택이 아름다운 뿐 만 아니라 전체적인 초형이 난처럼 기품이 있어 수변의 돌틈이나 포인트로 적용하면 효과적이다.



앵초류 봄 일찍 수변에서 꽃을 볼 수 있는 종들로서 화색이 다양하고 생육이 강한 개량종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청나레고사리 자연형 연못이나 계류의 돌틈사이에서 군식하면 좋고 어느정도 차광되는 음지에 식재하는 것이 생육에 좋다.

기타 주요수변식물 터리쑈, 야무가, 황금리시마카야, 별개미취, 부처꽃, 꽃별의꼬리, 금복초, 환강초, 동의나래 등

‘수중,수변식물의 이해’ 코너가 연재로 20회를 진행했다. 이번호에서는 한송 들리고 간다는 의미로 송년특집을 마련하였다. 지난 연재기간동안 소개되었던 식물들 중심으로 수중 수변식물을 한자리에 모아보았다. 크게 생태적으로 수변과 수중식물로 나누어 정리해보았고 연못이나 계류주변 등에 식물들을 설계하거나 직접 시공할 때 참고가 되기를 바란다.

— 편집자주 —

수중식물(물속에서 잘 자라는 식물)

수중식물은 크게 주로 30cm 미만의 얕은 물속에서 자라는 다양한 식물과 약 30cm이상의 깊은 물속에서 자라는 연꽃, 수련으로 나눌 수 있다. 대부분 빠르게 성장하고, 주변의 수변식물과 조화롭게 식재하면 연못의 정형적인 틀에서 벗어나 새롭고 신선한 경관을 연출할 수 있다.



무늬창포 창포는 꽃창포와는 전혀 다른 식물로 줄기의 힘이 좋고 생장이 매우 빠른 식물이다. 무늬창포는 잎의 윤곽이 좋고 무늬가 매우 아름다워 수중식물로 반드시 권장하는 소재이다. 수심 30cm까지 생장이 가능하다.



수련 연과 수련은 깊은 물속에서도 생육이 가능한 수중식물이지만 식재후 생장초기에는 수심이 약 10~15cm가 적당하고 생육중기에는 20~30cm가 적당하다 완전히 활착이 되면 수심이 30~60cm까지도 생육이 가능하다. 지금은 다양한 색상과 크기의 품종들이 많이 나와있어 구미에 맞게 선택하여 식재할 수 있다.



고리물옥잠 일년생 물옥잠과는 다른 다년생으로 잎이 길고 고리모양의 꽃이 가능하며 잎의 질감이 뛰어나고 생육이 강하여 군식하면 좋은 경관연출이 가능하다.



희룡물사초 블루색의 시원한 고급 수중식물로 수심 20cm까지 생육이 가능하며 잎의 질감이 뛰어나고 생육이 강하여 군식하면 좋은 경관연출이 가능하다.



무늬금리세리아 평소 지하경으로 번식하며 잎이 두껍고 아름다운 무늬가 노랗게 들어있어 포인트식물로 적용하면 매우 화려하다. 수심 20cm까지 생육이 가능하며 수변에도 적용가능하나 물이 어느정도 있는곳에서 생육이 왕성하다



무늬크고랭이 일종기에 새로운 하얀무늬가 형성되어있고 전체적인 초형이 매우 아름다운 대형 수중식물로 수심 30cm까지 생장이 가능하다.



물아카시아 생육이 매우 빠르고 물정화능력이 뛰어나 수중식물로 부레옥잠 대용으로만 생장할 수 있는 소재



노랑꽃창포 대표적인 수변 수중식물로 꽃창포와 달리 수심 30cm까지 생장이 가능한 식물로 칼같이 꽃은 잎과 노랑색꽃은 시원한 느낌을 준다.



부들류 부들은 대표적인 수중식물로 평소 지하경으로 매우 빠르게 번식하므로 작은 연못 등에 적용할 때에는 화분 등을 이용하여 식재하는 것이 타 수중수변식물들의 침범을 막을 수 있다. 키가 작은 미니종인 애기줄부들과 무늬가 아름다운 무늬부들도 있다.

기타수중식물 속새, 물수세미, 가래, 어린연꽃, 줄, 소구나무 등

현장리포트

2007년 현장을 돌아보다!!



레인보우힐스C.C. 올해 개장한 골프장으로 중심에 위치한 주변 경관이 매우 아름다운 곳으로 전체 27홀중에 포인트가 되는곳에 우리법인혼합종과 혼합식재를 작년과 올해에 걸쳐 시공하였다.



사노리힐스C.C. 3년전부터 핵심이 되는 법인에 우리법인4호를 이용하여 경관 조성



한국마사회 경마장내에 야생화공원을 조성하여 휴식공간으로 제공함으로써 방문객의 편의성을 얻으며 고객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신원C.C. 매년 핵심이 되는곳에 신목종을 이용하여 아름다운 경관을 넓혀가고 있다.



울산 태화강 태화강 둔치 법인에 우리법인4호를 시공하여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였다.



아시아나C.C. 혼합식재와 학가튼이 대면적으로 주위의 환경과 잘 어울리게 시공되어짐.



한경대학교 30,000만평부지의 한경대학교 부속농장을 2년에 걸쳐 안성시민의 휴식공간 및 전시 및 행사장, 체험학습공간으로 리모델링.



파주시 올해 꽃과 함께하는 기업축제로서 성공리에 치러진 파주 심학산 둘곳이 축제



중부C.C. 매년 전통에 걸쳐 혼합식재와 학가튼을 조성하여 이제는 꽃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골프장으로 자리를 굳혔다



춘천C.C. 3년에 걸쳐 천구간의 경관적으로 포인트가 되는곳을 대부분 학가튼으로 조성하여 학가튼의 행소가 되었다.



아시아나항공 본사 직원들의 편안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숙근지식물로서 아름다운 공간을 전체적으로 연출하였다.



골드레이크C.C. 숙근코스모스, 숙근왜상천민국, 가우라 등 장기간개화종을 비롯하여 개량꽃진디, 눈썹은팔레드 신목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경관조성



현장히트품종



아름다운 봄의 향연 매발톱 시리즈

1. 화색이 다양하고 매우 아름다운 봄식물
2. 공원, 골프장, 전원주택 등에 적용하면 좋다.
3. 다양한 품종으로 적용하여 넓고 고급스럽다.



하늘매발톱



서양매발톱



원하늘매발톱



매카니매발톱



스윗매발톱

응벽녹화의 최고봉 눈썹은팔레

1. 자람이 빨라 응벽, 암사면 테라리녹화에 안정맞춤
2. 절간이 넓고 미디미다 꽃대를 형성, 뽕강 꽃물결
3. 생육이 강건하고 화려한 응벽녹화 최고의 소재



다양한 화색의 봄 국화 구름국화

1. 봄에 피는 아름다운 국화
2. 건조에도 강한 최고의 화단식물
3. 키가 작아 혼란식재시 앞쪽식물로 좋다.



홍플미단



홍플하이브리드

화색이 아름다운 장기간개화형 툼플 시리즈

1. 화기가 길고 생육이 강하다.
2. 화색이 아름다워 고급정원용, 공원, 골프장에 안정맞춤
3. 각 품종간에 혼식하거나 단색군식에도 좋다.



툼플오렌지



툼플레몬



툼플미스탕

우리꽃 '현장이트품종'

화려한 봄 꽃방식

꽃 잔디
Phlox

1. 생육이 강건하고 자람이 빠른 최고의 봄꽃
2. 군식하거나 옥상 암석가든용으로 좋고 품종간 혼식하였을때 잘 어울려 그 효과를 배가시킨다.



화 색: 진분홍
화 기: 4~5월
초 장: 5
음 도: 양지



화 색: 빨강
화 기: 4~5월
초 장: 5
음 도: 양지



화 색: 보라
화 기: 4~5월
초 장: 5
음 도: 양지



화 색: 하양
화 기: 4~5월
초 장: 5
음 도: 양지

우리정서에 친근한 식물

초롱꽃
Campanula

1. 꽃이 탐스럽고 이색적인 꽃모양
2. 공원, 정원, 식물원에 잘 어울리는 소재



화 색: 하양
화 기: 6~7월
초 장: 40~50
음 도: 양지, 반음지



화 색: 자주
화 기: 6~8월
초 장: 40~50
음 도: 양지, 반음지



화 색: 보라
화 기: 5~8월
초 장: 40~50
음 도: 양지, 반음지



화 색: 하양
화 기: 6~8월
초 장: 20~30
음 도: 양지, 반음지

화색이 선명하고 반음지에도 잘 적응하는

동자꽃
Lychnis

1. 양지, 반음지 등 어느곳에서도 잘자란다.
2. 공원, 골프장 등 넓은 군식용으로 매우 좋다.



화 색: 주황
화 기: 7~8월
초 장: 30~40
음 도: 양지, 반음지



화 색: 진주황
화 기: 6~9월
초 장: 30~40
음 도: 양지, 반음지



화 색: 진분홍
화 기: 5~7월
초 장: 40~50
음 도: 양지



화 색: 진주황
화 기: 6~8월
초 장: 60~70
음 도: 양지, 반음지

건조지의 새로운표현방식

세덤
Sedum

1. 화기와 화색이 다른 품종이 많아 다양한 연출이 가능하다
2. 옥상조경은 물론 골프장의 암사면 등 건조, 척박지에 제격



화 색: 빨강
화 기: 7~8월
초 장: 30
음 도: 양지



화 색: 노랑
화 기: 6~7월
초 장: 5
음 도: 양지



화 색: 분홍
화 기: 6~7월
초 장: 5
음 도: 양지



화 색: 노랑
화 기: 5~6월
초 장: 5
음 도: 양지



화 색: 하양
화 기: 6~7월
초 장: 5
음 도: 양지



화 색: 노랑
화 기: 6~7월
초 장: 15~20
음 도: 양지



화 색: 빨강
화 기: 8~9월
초 장: 20~30
음 도: 양지



화 색: 노랑
화 기: 6~7월
초 장: 5
음 도: 양지



화 색: 노랑
화 기: 6~7월
초 장: 5
음 도: 양지

우리꽃 '현장이트품종'

장기개화형의 신소재

달개비
Tradescantia

1. 햇빛이 어느정도 들어오는 반음지에 적용가능
2. 봄부터 가을까지 장기간 개화형



화 색: 보라
화 기: 5~9월
초 장: 60~70
음 도: 반음지



화 색: 진보라
화 기: 6~9월
초 장: 50~60
음 도: 반음지



화 색: 연보라
화 기: 7~9월
초 장: 60~70
음 도: 반음지



화 색: 빨강
화 기: 5~9월
초 장: 40~50
음 도: 반음지

아름다운 꽃과 잎의 조합

아스틸베
Astilbe

1. 화색이 화려하고 다양하며 잎의 광택이 좋다.
2. 수변공간을 비롯하여 고급정원 등에 인성맞춤



화 색: 빨강
화 기: 6~7월
초 장: 50~60
음 도: 음지, 수변



화 색: 하양
화 기: 6~7월
초 장: 70~80
음 도: 음지, 수변



화 색: 분홍
화 기: 6~7월
초 장: 50~60
음 도: 음지, 수변



화 색: 빨강
화 기: 7~8월
초 장: 60~70
음 도: 음지, 수변

키 작은 화단용 고급소재

금계국
Coreop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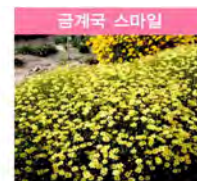
1. 봄부터 가을까지 연속개화하는 장기개화형 금계국
2. 생육이 강건하여 도로변, 정원용으로 좋다.



화 색: 노랑
화 기: 5~9월
초 장: 30~40
음 도: 양지



화 색: 노랑
화 기: 5~9월
초 장: 30~40
음 도: 양지



화 색: 노랑
화 기: 6~10월
초 장: 30~40
음 도: 양지



화 색: 노랑
화 기: 5~8월
초 장: 30~40
음 도: 양지

새로운 고급조경소재

그라스
Grasses

1. 포인트식물로 최상의 소재
2. 우리정서에 맞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식물



화 색: 노랑
화 기: 4~5월
초 장: 30~40
음 도: 양지, 음지



화 색: 노랑
화 기: 9~10월
초 장: 60~70
음 도: 양지



화 색: 하양
화 기: 9~10월
초 장: 170~200
음 도: 양지



화 색: 하양
화 기: 5~6월
초 장: 30~40
음 도: 양지



화 색: 하양
화 기: 20~30
초 장: 양지, 반음지



화 색: 하양
화 기: 5~6월
초 장: 50~60
음 도: 양지



화 색: 하양
화 기: 30~40
초 장: 양지



화 색: 하양
화 기: 5~10
초 장: 음지



화 색: 하양
화 기: 20~30
초 장: 양지



사진

지난 10월11일부터 13일까지 일본 최대의 스페이스를 자랑하는 국제전시장인 마쿠하리메세에서 IFEX(동경국제 화훼박람회)가 개최되었다. 전세계 25개국 600여업체가 참가하고 참관자수가 2만명이 넘는 세계적인 국제박람회이다. 동경국제화훼박람회에는 주요 테마인 꽃만 아니라 꽃포장지, 인공토양, 플라워아세서리, 조경책자, 농업기자재, 설계관련 컴퓨터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각가지 화훼관련 아이템들로 3천5백여평을 가득 메웠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사진1)

이번 박람회에서 각가지 아이템들을 보며 '자동화, 기계 화와 자연이 조화를 이루아가는 농업계'와 '한층 더 전문적이고 기업화되어가는 화훼시장' 즉 인간중심적으로 편의성을 확보하고 자연의 상태를 최대한 느낄 수 있는 점점 더 자연친화적으로 변화하는 시장을 엿볼 수 있었다. 그리고 행사 주체측은 각 국가의 메인부스에서 전문 플로리스트의 꽃꽂이, 원예교실 등의 다양한 이벤트를 주관해 바이어 뿐만 아니라 가정주부, 학생 등의 일반소비자들의 대방을 유도했다. 또한 작년과 달리 스타트업이 아주선하게 뛰



사진2

어 다리는 모습을 찾을 수 없을만큼 한층 업그레이드 된 행사로 진행되었다. 2007년 10월 11일 '우리꽃'은 2006년에 이어 2번째로 IFEX(동경국제화훼박람회)의 행사장인 마쿠하리메세에 또 다시 '우리꽃'의 행방을 내걸었다. 그 행방을 다시 걸기 위해 사사로온 사무용품부터 박람회내 출품하기위해 수개월 이상 특별관리제배를 해온 자체 개발 품종에 이르기까지 2006년을 경험으로 계획된 준비를 했다. 또한 2006년에 내용 없이 흘러보냈던 시간을 아끼기 위해 가드엔터 및 식물원 등의 사전조사에도 시간을 많이 할애했다.(사진2,3)

작년은 독일부스를 사용해 '우리꽃'의 독자적인 이미지를 구축했다면 이번 2007 IFEX에서는 aT센터의 주체로 한국과 운영관리의 지원을 받아 참가하여 한층 편의적인 박람회라 될 수 있었다. 한국관의 부스디자인을 블랙과



사진3

화이트의 깔끔하면서도 고급적인 현대적인 이미지와 한국의 정통이 잘 조화된 연출이었고 일본현지에서 이들에게 직접 취득한 갈대, 아세, 감자줄에 갈라스트레이의 고급스러운 색이 어우러진 '우리꽃' 부스는 그 조화를 한층 더 했다.(사진4)

일본은 누구누구의 제자라면 인정받을 정도로 능력있는 스승의 과원이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강하다. 그러한 일본의 유명한 플로리스트는 조화를 이룬 우리의 부스를 보



사진4



사진5



사진6

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사진5) 또한 일본현지 참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재를 가지고 연출된 '우리꽃'의 감각적인 디스플레이에 대해 '역시 갈대는 한국것이 최고야', '이것은 무슨 품종입니까?'라고 관심을 갖는 상황에 자칫 우리의 품종보다 디스플레이가 더욱 돋보일만한 '웃지 못할' 에피소드가 있었다.

같은 시기에 같은 행사장이었지만 그 긴장감 역시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작년에는 '우리꽃'이라는 회사명 세계 시장에 알리는데 주안점을 두었다면 이번에는 '우리꽃'이 자체개발한 속근지파식물들을 세계시장에 선보이는데 주안점을 두었다.(사진6) 2006 IFEX에서는 돌결조 꽃, 꽃 포양지, 신품종산인장 등 기존의 정화상품 이외의 상품들이 바이어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아생화, 정원자재, 가공제품 등 새로운 품목 및 업체 개발이 요구된 2007 IFEX에서는 한국관에서도 '우리꽃'의 관심과 기

대가 컸을 것으로 예상되었고 곧 그것은 실제로 일어났다. 그 설레임도 잠시 '우리꽃'이 자체개발한 신품종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고 바이어와 활발한 대화가 이어졌다.(사진7,8) 2007 IFEX행사 기간동안 일부 품종에 대해 구체적인 라이선스계약에 대한 대화가 나누어질 정도로 관심을 보였고 그 반응에 따라 올12월에는 현지에서의 직접 미팅이 계획되어있는 상황이다. 국내 최초로 국내의 속근지파식물 품종에 대한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이다. 외국인의 '우리꽃' 품종에 대한 관심으로 세계에 '우리꽃'을 퍼올 수 있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또한 박람회장은 흥성과 신음소리가 없는 전경이다. 박람회장은 신개발된 원거리 미사임과 파파리아 강한 탄아 대진 신개발된 품종으로 소리없는 전쟁을 벌이는 전쟁터와 다름이 없다. 국제박람회에 자기나라의 이름을 내걸고 참가한 각국 업체들은 그들의 신품종 개발에 대한 노력이 감탄을 느낄 수 있었다.

2007 IFEX 행사장내에 전시품들은 우리나라에서 현재 널리 소비되고 사랑받는 식물, 제품과 비슷해 보였다. 하지만 그 전시품들은 이들이 실패를 거듭해 이루어낸 신개발품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쉽게 예를 들면 조경용 부직포의 경우 우리는 전 물량을 수입하는 실정이다. 외국인의 경

우 농업인과 기계업자와 협력하여 자연과 산업을 조화시키는 인간에게 편의를 제공하며 자연의 효과를 극대화 시키는 아이템을 개발한다. 만약 우리가 새로운 아이템의 개발에 대한 노력 대신 농업인이라는 스스로의 틀에 사로잡혀 새로운 시장과 트렌드 없는 듯이 빠른 유수의 개척력과 같이 빠르게 변화하는 원예시장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우리들에게 새로운 아이템에 대한 개발과 새로운 시장에 대한 개척은 영원히 없을 것이다.

현 농업, 원예, 조경시장은 아이템이 아닌 가격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금과 같은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업계가 스스로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안일함을 떨쳐버려야 세계로 전진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와 관계기관의 많은 지원도 필요하지만 그에 앞서 각 주체가 새로운 아이템을 연구, 개발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 뒤에 이러한 것들을 적절히 뒷받침하고 지원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박람회가 본격적인 세계시장으로의 첫발걸음을 내딛는 기록제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앞으로도 '우리꽃'은 좋은 품종을 계속 개발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그리고 세계시장의 문을 계속 노크할 것이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사진7



사진8



이번 박람회에 선보였던 주요 품종들

독일붓꽃은 꽃이 크고 화색이 다양한 화려한 붓꽃입니다.

화려함의 진수 최상의 아름다움

"독일붓꽃"



독일붓꽃 SET 한정판매			
구분	품종당 수량(주)	총수량(주)	총금액(원)
20품종	10	200	700,000
20품종	5	100	400,000
20품종	1	20	100,000
10품종	5	50	220,000
10품종	1	10	60,000

택배비 별도

■ 반드시 물빠짐이 좋은 토양에 식재하십시오.

■ 가을의 대표적인 꽃인 아스타와 혼식식재해도 좋습니다.



→ 주문을 서둘러 주세요.

자연을 닮은 사람들  구입문의 : (02)3412-1281~2

골프장, 아파트, 도로가의 새로운 경관연출!

대면적의 아름다운 연출을 위한 최고의 소재

"우리법면 3.4호"



이천연구소



파인밸리 C.C



렉스필드 C.C



김포 C.C



울산 태화강 둔치 법면



백어프리타운 C.C



양정건설 아파트

특 성

- ① 야생화 26종이 안정된 비율로 혼합되어 봄부터 가을까지 계속해서 매년 아름다운 꽃을 감상할 수 있다.
- ② 일년생과 다년생이 적절히 혼합되어 첫째에는 일년생위주로 꽃을 피우면서 첫째부터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한다.
- ③ 안정된 비율로 혼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해가 지날수록 더욱 아름다운 경관과 아울러 안정된 식생을 유지한다.
- ④ 연중 시공이 가능하며 유사품과의 구별을 위해 무늬질경이를 혼합하였다.

사용량

- 파종량(㎡) : 10g
- 파종 시기 : 연중가능
- 파종 방법 : 면 정리후 기계분사파종
상황에 따라서 손파종도 가능

자연을 닮은 사람들



우리꽃 구입문의 : 02)3412-1281~2

자연을 닮은 사람들



우리꽃 사원모집 안내

우리꽃-서울본사

서울시 강남구 돌연동196-82

모집부분	모집인원	학 렳	자격요건
총무 기획	1명	대졸이상	기획, 영아전공자 우대
디자인	1명	초대졸이상	

우리꽃-이천연구소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송곡리 696
우리꽃 이천연구소

모집부분	모집인원	학 렳	자격요건
생산관리	2명	고졸이상	원예, 조경관련 전공자 우대

※ 인사담당 : 02-3412-1281 (Fax, 02-3412-1283)

전 세계를 무대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신입사원을 모집합니다.
많은 지원 바랍니다. 감사합니다.